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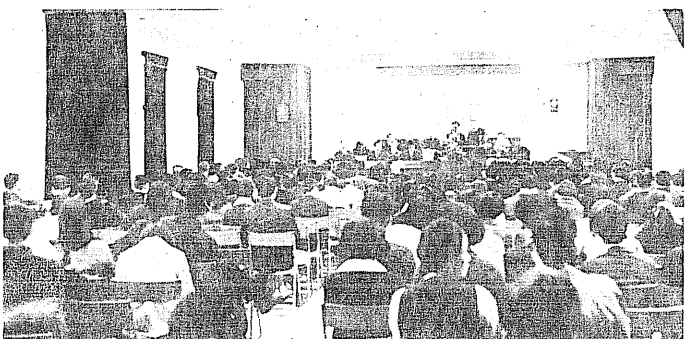


## 호남 지방부 지방대회

11월 1일 메콩키 형제를 모신 가운데 열린 호남 지방대회는 광주지부에서 열렸다. 11시와 2시에 총회를 가진 광주, 전주, 대전, 군산, 북포 등지에서 참석한 258명의 성도들은 “선전사업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더욱 많은 사람이 받도록 준비하자”는 말씀을 들었다. 청소년들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당부했던 그는 한국 교회의 발전은 이곳에 올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었다.

## 서중앙 지방부 지방대회

11월 7, 8일 양일에 걸쳐 있었던 첫번째 서중앙 지방대회에는 360여 지방부 산하의 성도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었다. 가정 복음교육을 강조했던 제 1총회와 영적인 발전을 다짐했던 제 2총회에서 청운, 녹번, 서부, 신촌, 인천 지부의 성도들은 서부지부의 박 기생, 청운지부의 육 경남 형제를 장로로 지지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대회에서는 김 중균, 한 인상, 김 산, 서 현보, 이 호남, 위티커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 동중앙 지방부 지방대회

지난 11월 14일과 15일 동부지부에서 가진 지방대회에는 동부, 삼청, 성북, 영등포, 춘천지부의 성도 300 명이 참석하였었다. 성도들은 최 재영, 이 윤희, 김 희중 등 3명의 형제를 장로로 지지하였으며 손 승은 형제를 지방부장단 기록서기로 지지하였다. 선교부장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 늘 계명대로 생활을 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이어서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늘 생활의 길을 열어 주신다.”면서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셨다.

### 정형제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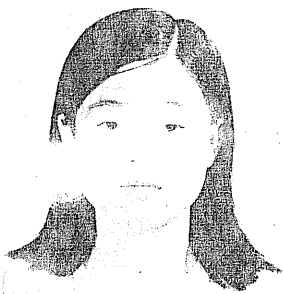
지난 68년 10월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부산지부의 정 민호 형제가 임기를 마치고 10월 13일 귀환하였다. 영등포, 춘천, 서부 등지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그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일해왔을뿐”이라고 그간의 노고를 겸손해했다.

### 조형제 귀환

복음 선교사로 2년간 봉사했던 동부지부의 조 태호 형제가 지난 11월 5일 귀환하였다. 동래, 대구, 부산 등지에서 꾸준한 일군으로 모범을 보여왔던 그는 “너무도 빨리 지나버린 2년간”이었다면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었다.

### 서중앙 지방부 역원 훈련반 개최

지부장단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열린 이 모임에서는 교회의 운영, 관리, 교회사, 복음원리가 다루어 지는데 이 모임은 약10회에 걸쳐 계속된다.



### 한자매 도일

지난 11월 7일 상명학원 33주년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끝마친 바있는 동부지부의 한 미상 자매는 11월 19일 대학생 국제 친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1달 예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그는 상명 여자 사범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지난 9월 취임한 바 있다.



### 마산지부 바자

지난 11월 5일 마산지부는 성향회 공과시간을 마치고 저녁식사와 바자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지부예산을 위한 이 모임에서 한 해 자매는 자신의 작품 다수를 지부에 기증하여 더욱 성향을 이루게 하였다.

